

환경교육 및 민간협력 강화

고 재 윤

환경부 민간환경협력과장

1. 현황 및 문제점

가. 개념

- 환경교육은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당면한 환경문제 해결과 친환경적인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일련의 교육활동임.
 - 청소년, 일반국민 등에게 강의, 실험·실습, 토론, 체험 등 다양한 교육수단을 활용하여 친환경적인 가치관 정립과 생활양식 변화를 유도하는 교육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음.

- 환경교육의 개념은 학술적으로 그 범위 및 내용이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정규교과과정 내에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환경교육, 다수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민간사회단체, 자치단체, 기업 등이 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사회환경교육으로 구분함
 - 다만, 환경교육 분야 중 당면한 환경문제의 기술적 해결을 위한 “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등에서 이루어지는 환경 전문교육” 등 환경기술인력의 육성과 관련되는 환경전문교육 영역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전문인력육성계획」에 의함

나. 현황

1). 학교환경교육 분야

초·중등학교의 환경교육

- 제6차(1992년 고시, 1995년 초등학교 신입생, 1996년 중학교 신입생, 1997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 및 제7차 교육과정(1997년 고시, 2000년 초등학교 신입생, 2001년 중학교 신입생, 2002년 고등학교 신입생부터 적용됨)에서 제량활동시간에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 독립교과로서 환경과목이 신설됨
(중학교 환경과목의 명칭은 “환경”이며, 고등학교 환경과목의 명칭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환경과학”이었던 것을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환경의 인문사회학적인 측면을 보다 강조하여 “생태와 환경”으로 개칭함)
- 2003년 말 현재 환경과목 선택학교는 총 1,105개교로 전체 중·고교의 약 23%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지역별로 선택학교의 수가 큰 차이를 보임.
 - 부산지역의 중학교의 경우, 환경과목의 선택학교 비율: 95.8%

※전국 평균: 15.2%

- 경기지역의 고등학교의 경우, 환경과목의 선택학교 비율: 98.1%

※전국 평균: 33.2%

□ 환경보전시범학교의 현황

- 청소년의 환경가치관 정립과 환경보전활동 우수사례 개발·보급을 위하여 '85년부터 2년 주기로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 주요 활동내용:
 - . 교과서의 환경관련 내용을 지역특성에 맞게 체계화한 교수·학습(안)마련 및 적용
 - . 환경관련 행사, 현장체험학습 실시 등 특별활동을 통한 환경보전 의식증대
 - . 지역 민간단체 등과 연계한 캠페인 등 각종 환경보전 홍보 및 계도
- 2004년 현재 제10차 환경보전시범학교(26개교, 유치원-8개교, 초등학교-8, 중학교-6, 고등학교-4)가 운영 중이며, 그 간의 우수사례 보고회, 우수학교 및 담당교사 그리고 모범학생들에게 포상 수여 등으로 학교환경교육의 구체화·활성화 및 저변화에 기여

□ 환경교육 담당교사 현황

- 중등학교의 환경교사의 경우 첫째, 공주대 등 5개 사범계 대학 환경교육과에서 환경전공교사를 양성하는 경우, 둘째, 기존의 물리, 생물 등 기존의 상치교사가 환경과목을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방법(일반대학에서 연 360 시간의 연수를 받고 자격 취득), 셋째, 일반대학의 환경관련학과 재학생이 교직과목을 이수하는 방법 등으로 양성함(일반대학의 경우 환경관련학과가 설치되어 교직이수가 가능한 곳은 20여개 대학임).
 - ※ 5개 사범계대학: 공주대, 교원대, 순천대, 목포대, 대구대학교
- 2003년 말 기준으로 환경교사자격증 취득자는 환경전공교사 330여명, 환경부전공교사 1,520 명 등 약 1,850명에 달함
 - 이 중 환경과목 선택학교에서 환경교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환경전공교사 57명, 부전공교사는 557명 등 총 614명임(2003년 말)
- 교사의 환경연수는 국립환경연구원의 중등학교 교원을 위한 환경교사 연수과정, 시·도 교육청의 초·중등교의 환경보직 교사연수, 대학원에서의 환경교육과정 등이 있음
 - 그 외 현직교육으로 4-5년마다 있는 재연수 교육과정에서의 환경강좌, 국립환경연구원 연수부와 사설 인증기관의 교사연수 프로그램 운영, 환경보전협회가 주관하는 전국 환경교육지도자 워크샵, 학교자체의 외부강사 초빙연수 등 운영

□ 대학에서의 환경소양교육

-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서의 환경은 '70년대부터 환경과학, 환경보전, 인간과 환경,

환경교육 등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으며 점차 증가 추세임.

- 대부분의 대학에서 환경을 자연과학의 일부로 이해하며 강의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천교육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함
- 대학의 환경동아리를 중심으로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 등에의 참여는 점차 활발해지고 있음

2) 사회환경교육 분야

□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인 환경교육활동

- 환경보전캠페인 등 환경보전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2003년 말 기준으로 허가법인인 235개 단체이며, 비 허가단체로서 95개 단체(등록 61개 단체 그리고 기타 34개 단체)로서 총 330개 단체로 파악됨.
- 재정지원으로 2003년에 국고보조가 6개 단체에 17여억 원, 환경민간단체진흥기금에서 97개 단체에 5억여 원 정도임.
- 상기 파악된 단체이외에 자생적으로 환경보전활동을 수행하는 소모임 등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됨.
-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환경보전활동의 대부분은 환경보전 국민홍보 및 캠페인, 문예작품·학술논문·수기 등의 공모, 환경보전 사진전, 환경강좌 및 생태기행, 환경오염에 대한 고발, 각종 시민참여 축제 주관 등을 비롯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학술연구, 정보수집 및 네트워크 등의 기능을 수행함.

□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중심의 환경교육활동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제 21을 수립함에 있어 환경교육·홍보 관련 시책의 강화를 표방하는 등 환경교육·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해 가고 있는 추세임.
 - 다만, 지역의제 21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예산배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현가능성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음
-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에서 체험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단체·학교 등의 신청을 통해 국고를 지원하는 사업을 2000년도부터 시행하여 오고 있으며, 2003년에는 15개 시·도의 81개 단체에 4억 4천만 원을, 13개 교육청의 64개 각급 학교에 3억 8천7백만 원을 도합 145개 단체·학교에 8억 2천7백만 원을 지원하였음.
- 기업의 사회환경교육은 기업별로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환경교육장의 설치,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참여·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하고 있음.
 - 경동보일러 본사 옥상에 설치한 「하늘동산 21」 환경교육장, 유한킴벌리에서 후원하는 「생명의 숲 가꾸기 운동」, LG-CALTEX 정유회사가 매년 5월 주관하는 어린이 그림·글짓기 대회, 조선일보사의 환경대상수상자 선정·시상, 교보생명의 환경대상 수상자 발굴 및 시상, FORD 자동차 회사가 수행하는 환경부문의 공이 큰 개인·단체를 발굴·시상하는 것 등이 대표적임.

□ 교육대상별 환경교육

○ 주부 등 여성, 가족단위, 일반인 등 생활공간에서의 환경교육:

- 민간 환경단체,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전개됨

※ 국민환경의식조사(2000년): 일반국민의 환경관련 교육 이수경험은 환경강좌 11.6%, 환경체험교육 8.6%, 공공기관을 통한 교육 0.3%, 환경단체를 통한 교육 0.2%, 반사회 모임을 통한 교육 0.1%, 방송매체를 통한 간접교육 71.4%, 인터넷을 통한 간접교육 7.0%로 조사됨.

○ 군부대에서의 환경교육:

- 국방부 중심으로 군 지휘관, 일반 장병, 부대 단위 등으로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국방부와 환경부간에 설치된 군·관 환경협의회를 통해 군내의 환경교육에 관한 자료지원 등 군내의 환경교육 강화에 관한 협의를 하고 있음

- 군에서의 환경인식 교육을 확대하고, 군의 각 교육기관별 교육과정에 환경과목을 개설하여 정규평가에 반영

- 환경 특기병 제도를 도입하고, 환경보전시범부대 운영으로 부대생활 전반의 친환경성을 제고

○ 민방위대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 민방위대를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은 민방위 교육시간을 이용하여 매년 260만 명 이상에게 「환경오염방지대책」 등 교육 실시

□ 환경교육·홍보단 강사지원을 통한 환경교육

○ 2000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환경교육·홍보단 제도는 환경부(8개 유역환경청·지방환경관리청)에서 교육을 희망하는 단체 등에 「환경교육·홍보단」 강사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제도임.

○ 2003년 말 현재 1,077 회 강사지원을 하여 2000년 451회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민간에서 환경교육수요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8개청에 총 강사는 467 명이며(위촉강사 320명, 예비강사 147 명), 위촉자 분야별 분포는 교수 등 전문가 (150명), 환경단체 관계자(93명), 환경운동 실천가(33명), 교사·공무원(18명), 종단별 환경지도자(22명), 환경원로(4명) 등임

□ 기타 각종 환경교육을 위한 지원 및 여건조성 등

○ (재)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에서는 매년 환경보전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우수 사업에 대하여 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있음

- '94년부터 2003년 까지 총 309개 단체에, 43억 9천3백만원을 지원

○ 사회환경교육활동의 지원을 위한 교재 및 시설의 확대

- 「체험환경교육의 이론과 실제」 등 사회환경 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공무원·기업인·민간단체·여성·군인 등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교재 개발·보급 예정임

- 초등학교를 상대로 국립공원별 특화된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방문객 안내

시설 및 탐방시설 설치확충 등 사회환경교육을 위한 생태학습장 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

○ 인터넷 등을 통한 환경교육기반 마련

-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종합 환경교육·홍보사이트로서 현재 ‘눈높이 환경교실’, ‘한국환경교육활동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물사랑 홈페이지’, ‘자연생태동영상 라이브러리’, ‘음식물쓰레기 감량자원화’ 등을 운영하고 있음
- 향후 이용자들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정보제공 및 다양한 환경교육 자료 제공의 One-Stop 서비스 실현을 위한 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며 특히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을 통합 구축하고,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개하는 유기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임.
- 2004년부터 찾아가는 환경교육 실시차원에서 ‘푸르미 이동환경교실’ 차량 1대를 구입하여 수도권 일대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다. 문제점

1) 환경교육주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미비

학교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 교육인적자원부, 시·도 (교육청), 일선 각급학, 민간단체 등간의 협의체 내지는 기구의 부재

2) 학교환경교육의 문제점

- 초등학교의 경우 독립된 환경교과목이 없고, 따라서 환경 전공 교사도 없으며, 각 학년별 수준에 맞는 교육자료 부재.
- 중등학교의 경우 환경과목이 있으나, 필수가 아닌 선택과목으로서 실제로 선택한 학교는 평균 23%에 그치고 있으며, 그나마 선택한 학교에서도 환경과목이 평가과목이 아니고 단순 이수과목으로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학생 및 교사의 관심이 적으며, 체계적인 환경교육영상물 등 교육자료가 부족하고, 환경을 전공한 환경전공 교사의 임용률이 적고 기존의 물리 등 상치교사가 환경을 부전공하여 환경교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환경전공교사도 아니고 부전공한 경우도 아닌 일반 체육교사 등이 환경을 담당하는 경우도 있음.

3) 체계적인 환경교육프로그램DB 부족 및 인적 전문가 Network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

4) 체험환경교육 공급자와 수요자를 매개 및 연결해주는 유기적 데이터베이스 미구축

2. 향후 전망과 정책방향

가. 향후 전망

1) 사전예방적·시민참여적 환경행정으로의 전환

□ 21세기 환경정책의 주요기조의 사전예방 정책으로 전환

- 20세기에는 발생된 오염물질의 사후처리 환경정책이 기조를 이루었으나 21세기는 오염물질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정책으로 전환.
- 따라서 환경정책은 종전의 대기, 수질, 폐기물 관리 등 매체별 관리에서 확대된 통합관리가 강화되고, 특히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를 관리하고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환경교육 등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예상.

□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전 단계에의 시민참여행정 강화

- 환경정책의 성패에 시민참여와 협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함에 따라, 특히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 및 행정계획 입안 단계부터 시민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 이를 위해 각종 민·관 합동위원회 등의 활성화,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및 의견수렴 특히 정책고객 모니터링 제도를 통한 관련정책에 대한 의견수렴 등 열린 환경행정이 강화될 전망

2) 여가생활을 중시하는 개인·가족 중심의 생활문화 정착

□ 주 5일제 근무 도입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가와 그에 따른 환경교육수요의 증가

- 주 5일 근무제가 사업장, 공무원 그리고 각급 학교에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여가시간 증대로 이에 따른 사회전반의 변화 특히, 각종 야외·레저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로 환경교육영역에서 체험환경교육프로그램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 개인과 핵가족 중심의 여가문화 정착

- 휴일증가 등은 개인과 가족 중심의 생활문화로 이어져 개인 또는 가족단위의 체험 환경교육의 장과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대폭 증가가 예상된다

□ 노인과 맞벌이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한 생활패턴의 변화

-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사회의 노령화가 급속히 확산되어 노인 1인가정이 확대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맞벌이 부부 등이 늘어나는 등 가정생활의 편리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생활맞춤형 환경교육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

3) 정보화에 기반을 둔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

□ 인터넷 사용인구의 폭발적 증가

- 우리나라 전 인구의 56%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이 중 약 60%는 매일 이용하는 등 인터넷 이용인구의 급증
- 특히 국가차원의 정보화에 대한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사회 전반의 정보화는 한층

가속화 전망

평생교육체계의 강화

- 인터넷의 확산과 재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 및 관련부처의 지원·육성정책에 따라 정규교육기관 외에 노인, 주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

4) 지역, NGO 등 각 단위의 환경교육활동 확산

지방의제 21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환경보전활동 강화

- 지방자치단체는 '94년부터 '지방의제 21'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며, 상당수 지방의제 21에서 환경교육 강화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 지방의제 21의 구체화와 함께 지역단위의 환경교육활동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

NGO의 증가와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양질화

- NGO의 증가비율은 최근 다소 둔화되었으나,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들의 자발적인 환경교육활동은 더욱 활발해지고 또한 특화 내지는 관련 프로그램의 평가를 통한 개선 등으로 양질화가 예상됨

5)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제적 이행평가의 강화

범지구적 환경보전 실천의제인 '의제 21'에 대한 이행평가를 강화하는 추세임

- 국제적으로 의제21의 이행평가지표가 속속 마련되어 매년 국가별 환경성과지표, 상태지표 등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나. 목표 및 정책방향

1) 목표

- 국민 모두가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사는 생명공동체」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의식과 생활양식의 정착
- 환경교육·홍보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들의 환경보전활동에 실천과 참여도의 제고

2) 정책방향

2)-1 환경교육에 관한 각 분야의 협력체계 강화

국가, 지역, 민간단체 상호간 등 각 단위의 협력체계 구축

- 각 단위별 파트너십을 통한 관련 정보 및 자원의 공유, 정책의 우선순위 조정 등을 수행하여 환경교육정책의 효율을 극대화

국제협력체계의 강화

- 지역적·문화적 맥락이 유사한 한·중·일 간 협력을 통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상호 적용·평가 등 구체적인 정책협력 방안을 모색

2)-2 환경교육의 양적 확대와 질적수준 제고

□ 학교, 사회 등 모든 공간에서의 환경교육 확대

- 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환경교육의 장이 되도록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체험환경교육의 지역별 특성화를 유도하며, 교육 대상에 따른 프로그램 특성화 등 사회환경교육프로그램 확대·강화

□ 평생교육차원에서의 환경교육 추진

- 기업, 주부교실, 노인대학 등 각종 평생교육체계 내에서 환경교육 강화 및 주민자치센터, 군대생활, 민방위 교육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환경교육활동의 전개로 국민들의 접근성을 대폭 확대

□ 환경교육활동의 질적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 학교 및 사회에서의 환경교육 기반시설 확충, 교사·지도자·학생용 등 차별화된 교육자료 개발·보급 등 환경교육 내실화를 위한 각종 지원시책 확대
- 학교의 환경담당교사, 사회환경교육 지도자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프로그램 확대

2)-3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환경교육활동 육성·지원

□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의 개발 추진

- NGO, 자치단체 등 기관별 환경교육 우수사례 발굴·보급 등을 통한 실천모델 제시
- NGO가 주관하는 각종 환경교육활동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강화

□ 기업의 환경교육 역할 지원

- 기업 내 일반직원을 상대로 환경교육을 실시토록 유도하며, 실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친환경기업체로 선정하는 데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

2)-4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환경교육의 다양화

□ 인터넷을 통한 환경교육의 대폭 확대

- 학교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사이트 구축,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수요자와 공급자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유기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 생활패턴의 변화에 맞게 환경교육의 특성화 추진

- 여가시간 증대에 따른 체험환경교육의 대폭 확충 및 참여 중심의 프로그램 중점

발굴 등 추진

○ 생활폐탄별, 지역별, 계절별 맞춤형 환경사랑생활수칙의 보급 등 생활밀착형 환경
교육활동의 전개